

기획연재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학술연구에 몰두할 수 없는 학술연구기관 부당한 대우에도 숨죽여야 하는 대학원생

#. 대학주보는 이번 학기에 '위기의 대학원, 도약의 계기로 삼자' 연재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총6회에 걸쳐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학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하고 다단한 문제들에 대해 차근차근 고민해보는 동시에, 옆 나라 일본의 대학원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며 우리의 현실과 비교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다.

연재순서

① 총론-대학원의 위기

- ② 장학제도
- ③ 생활복지 및 연구지원 시스템
- ④ 커리큘럼
- ⑤ 학생선발 시스템
- ⑥ 대학원 조직문화

연재기획① : 대학원의 위기

백승철 기자 sch01357@khu.ac.kr
최승욱 기자 dotoril4@khu.ac.kr

"대학교육의 목적을 일종 정심(精深)하게 추구하는 동시에 학술연구의 지도능력(指導能力)과 독창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학 과정보다 한층 더 심오한 연구와 교수(教授)를 실시하는 교육기관. 국가에 따라 그 주요 기능을 연구에 두기도 하고 연구와 교수에 두기도 하나 미국이나 우리나라에는 후자에 두고 있다."

교육학용어사전이 정의하는 '대학원'의 정의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 대학원이 이렇듯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는 심오하고 전문적인 학술연구의 장은 아니라는 데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위기의식마저 불러온다.

사실 대학원이 위기를 맞은 이런 상황이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말 뛰어난 일부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원들이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학교 대학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게다가, 한국 대학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문제점들과 함께 우리학교만의 추가적인 문제점들까지 가지고 있다.

대학원생의 경제적 문제는 '연구인력'을 '저가노동력'으로 둔갑시켜

우리학교를 '대학원중심대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분류하자면 우리학교는 '학부 중심대학'에 더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이 '대학원중심대학'보다 대학원의 역할을 축소시켜도 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연구', '봉사'라는 대학의 3대 기능 중에서 '연구'의 기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대학원이기 때문이다.

"원우들이 다른 데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우리학교는 그런 점에서 미진합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박진홍 회장의 말이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학교 대학원이 대학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소리다.



대학원생의 삶은 대학생의 삶에 비해 훨씬 바겁다. 공부하느라 바거운 것 보다는 살아남는 데에 바겁다. 가령 경제적인 측면을 보자.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우리학교 일반대학원의 등록금 평균은 학기당 578만원이다. 이는 우리학교 학부 등록금 평균 382만원에 비해 약 1.5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제도는 학부생을 위한 그것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대학원에 온 목적이 '공부'에 있음을 감안하면 대학원생은 학부 생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쏟을 여력도 부족하다.

그래서 상당수의 대학원생은 근로장학금을 통해 학비를 충당한다. 문제는, 근무를 통해 학비를 감면받는 이 제도가 업무 때문에 정작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대학의 '연구' 기능을 담당해야 할 인력이 대학의 '저가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근무처에 따라서는 직원 본인이 해야 할 업무를 조교에게 떠넘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심지어 강제로 야근을 강요하는 경우도 생기는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된 대학원생들이 많다.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정책 속에

흔들리는 대학원

최근에는 그마저도 조교 근무시간 조정 등의 정책을 통해 근로장학금을 받는 것도 이전 대비 어려워진 상태다.

그렇다고 강의환경이 학부과정에 비해 획기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그 질적 측면에서 학부과정 강

의와 큰 변별력을 지니지 못한다.

'국제화 지표'를 평계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은 강의환경 문제의 주요한 화두 중 하나다. 학부 강의실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대학원 강의실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한국에 실력이 부족한 유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수업이나 의사소통에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업의 질을 하락시켜 필연적으로 '학습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거꾸로 돌아간다.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수준을 끌어 올리는 대신, 오히려 반대로 논문심사기준이나 성적평가기준을 낮춰 그들의 수월한 졸업을 돋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국제화 지표를 높이기 위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는 대학원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며 학술과 연구라는 대학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도 방해가 될 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도제식 교육'으로 지칭되는 사제관계는 교수가 학생에 대해 엄청난 권한을 갖는 대학원 특유의 구조와 만날 때 거대한 부조리를 만들어낸다.

지난해 10월 29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전국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자. 발표결과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45.5%는 언어·신체·성적 폭력, 차별, 사직노동, 저작권 편취 등 부당 처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중 65.3%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우리학교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학교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희대학교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43.2%의 대학원생이 언어·신체·성적 폭력 및 차별 사직노동, 저작권 편취 등의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중 63.6%는 불이익이 두려워 부당대우에 대해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대한 부조리 잉태하는 왜곡된 조직문화

당연하게도, 대학원생이 이런 부당처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교수는 자신의 학생이 제출하는 논문을 심사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교수는 마음만 먹으면 학계 내에서 해당 학생을 영구적으로 추방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교수는 학생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면서 대학원 사회에 만연한 부당처우는 어느 한 대학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견제장치가 없는 교수의 절대적 권리구조를 가진 대학원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학주보는 다음 호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대학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크게 장학제도, 복지제도, 연구지원시스템, 커리큘럼, 대학원 문화 등의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는 한편, 이러한 문제가 외국 대학원에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미디어센터가 더 다양한 기획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미디어센터에서는 신문방송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기획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학내 구성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뉴스메이커와 화제의 학내 현장 모습을 담아내는 포토뉴스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기획연재 신청을 기다립니다.
관심있는 필자분은 언제라도 미디어센터에서 연재기획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961-0094 http://media.knu.ac.kr/
031-201-3231